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축구대표팀의 출정식에서 팬들이 홍명보 감독 및 대표팀 선수들에게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 16강 확률 49%”

골드만삭스 보고서

“러시아 65%·벨기에 62%”

세계 경제 분석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미국 투자 은행이 태극전사가 브라질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아깝게 16강에서 탈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28일 펠낸 ‘월드컵과 경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49.1%로 전망했다.

이는 다른 H조 러시아(64.5%), 벨기에(61.8%)의 16강 진출 가능성보다 낮고 알제리(24.6%)보다 높은 수치다. 전체 32개국 가운데에는 18위에 해당한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1960년 이후 각국 대표팀의 국제경기 기록과, 체스 랭킹 산출방식으로 대표팀의 통산 경기 성적을 반영하는 엘로(ELO) 랭킹을 토대로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32개국 각 라운드에 진출할 확률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8강, 4강, 결승에 오를 가능성은 각각 11.9%, 3.5%, 0.5%였다. 한국이 우승할 가능성은 0.1%로 전망됐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에 대해 “자국 팬의 열렬한 응원,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과 등에 힘입어 탄력을 받으면 월드컵에서도 위협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조별리그 상대국보다 16강 이후 경향이 많다”며 16강에 올라갈 확고한 기회를 잡았다고 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8강 진출 가능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우승팀으로는 개최국인 브라질을 꼽았다. 브라질이 우승할 가능성은 48.5%로 점쳐졌다. 브라질의 우승에는 홈 어드밴티지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아르헨티나가 14.1%, 독일이 11.4%로 브라질의 뒤를 차례로 이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이번 대회 베스트 11도 선정해 공개했다.

골키퍼에는 마누엘 노이어(독일)가 뽑힌 가운데 수비수로 다니 아우베스, 티아구 실바(이상 브라질), 세르히오 라모스(스페인), 필립 람(독일), 미드필더에는 에덴 아자르(벨기에),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스페인), 프랑크 리베리(프랑스)가 선정됐다. 공격수에는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네이마르(브라질)가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무던 공격·험거운 수비...조직력 약점 전훈 과제

컨디션 회복·역습 훈련 올인...오늘 마이애미 출국

사상 첫 원정 8강 달성에 도전하는 홍명보호(號)의 미국 마이애미 전지훈련 ‘키 포인트’는 태극전사들의 컨디션 회복과 역습 속도 배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30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지막 전지훈련을 치를 마이애미로 떠난다. 23명의 태극전사들은 28일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0-1로 패배한 탓에 가볍지 않은 발걸음으로 장도로 오르게 됐다.

튀니지전에서 한국은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요약되는 ‘홍명보 축구’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홍 감독이 열흘여 간의 전훈에서 컨디션 회복을 통해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고 역습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공격 전술의 세밀화 작업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통된 전망을 내놨다.

홍명보호는 튀니지전에서 수비수들의 공간 간격 유지에 실패했고 수비라인을 끊임없이 조절하는 것은 결국 체력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튀니지 역시 우리와 같은 조건이었지만 우리 컨디션이 더 나쁘다”면서 “조별리그 첫 경기를 불과 2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컨디션 회복이 홍명보호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튀니지전에서 이렇다 할 득점 찬스를 한 차례도 만들지 못했다. 수비시 5백까지 형성하며 두텁게 벽을 세운 튀니지의 뒷문을 공략하는 데에 실패했다.

활발한 측면 공격으로 그라운드를 넓게 써 상대 수비진을 분산시켜야 했지만 좌우 풀백 운석영과 이용의 효과적인 오버래핑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홍명보호의 주요 득점 방식이 되어 할 역습 상황에서는 기성용과 구자철이 패스를 줄 곳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신 교수는 “조별리그에서 맞붙을 3개국 중 모두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역습의 순도’를 높이는 것이 득점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가 공을 잡으면 B가 움직이고, 그렇게 생긴 빈 공간에 C와 D가 연속적으로 들어가 A에게 패스할 선택지를 늘려줘야 하는데 튀니지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윙패스와 백패스만 남발됐다”면서 “본선에서 골을 넣고 싶다면 마이애미 전훈에서 역습의 속도를 배가하는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신 교수는 “조별리그에서 맞붙을 3개국 중 모두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역습의 순도’를 높이는 것이 득점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가 공을 잡으면 B가 움직이고, 그렇게 생긴 빈 공간에 C와 D가 연속적으로 들어가 A에게 패스할 선택지를 늘려줘야 하는데 튀니지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윙패스와 백패스만 남발됐다”면서 “본선에서 골을 넣고 싶다면 마이애미 전훈에서 역습의 속도를 배가하는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회복 더딘 김진수 빼고 박주호 발탁



박주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왼쪽 수비에 심각한 비상이 걸렸다. 왼쪽 측면 수비수(풀백) 김진수(알비렉스 니가타)가 경기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발목 부상 회복이 더뎠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9일 김진수 대신 같은 포지션에서 활동하는 박주호(마인츠)를 불러들이기로 했다. 심각한 점은 박주호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애초에 월드컵 최종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라는 사실이다.

박주호는 지난 시즌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연일 폼타임을 소화하며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그러나 시즌 막판에 발가락 부상으로 최종명단에서 낙마하고서 비시즌을 보내고 있

었다. 이런 요인 상황을 두고 홍명보호가 최종 23인이 아닌 예비선수까지 포함한 30인 단위로 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게 현명했다는 결론도 제기된다.

현재 홍명보호의 풀백 자원으로는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QPR)도 있다.

그러나 윤석영도 클럽에서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 못한 데다가 대표팀 합류까지 늦었다. 소속 클럽인 QPR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이유로 윤석영을 최근에 보내줬기 때문이다.

윤석영은 전날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늦게 합류한 까닭인 듯 다른 선수들보다 처지는 감각을 노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볼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최후방의 포백 수비라인에서 조금씩 언박자를 내기도 했다.

박주호, 윤석영을 왼쪽 진영을 지킬 핵심요원으로 삼아야 하는 홍명보호는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과 맞붙을 러시아, 알제리, 벨기에에는 명성이 자자한 원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러시아 안렉산드르 사메도프(로코모티프 모스크바), 알제리의 소피양 페굴리(벨렌시아), 벨기에의 케빈 더 브라위너(볼프스부르크) 등 오른쪽 원자들이 포지션 상으로 왼쪽 측면을 노리는 공격수다.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마이애미 전지훈련 캠프를 떠나는 홍명보호가 왼쪽 수비에 딱힌 암운을 어떻게 견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발목 부상’ 홍정호 어찌나...

조선태 출신 국가대표 수비수 홍정호(아우쿠스부르크)가 29일 병원에서 발목 부위에 대한 정밀 진단을 받았다.

홍정호는 전날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와 평가전 후반 13분 튀니지 공격수 이삼 제마(쿠웨이트 SC)와 충돌하면서 왼쪽 발목 부위를 다쳤다. 넘어지는 순간 홍정호는 손을 들어 벤치에 교체 사인을 보냈고 이후 들것에 실려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왼쪽 발목과 발등이 이어지는 부위를

다친 홍정호는 발사 상태 지켜본 뒤 29일 병원에서 인대나 뼈 손상 여부를 점검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많이 붓지는 않았으나 예방 차원에서 목발을 짚고 부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약 2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떠나 인대 문제 발생 시 최악의 경우 선수 교체도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